

인도 중앙은행, 은행금리 인상

(2013. 7. 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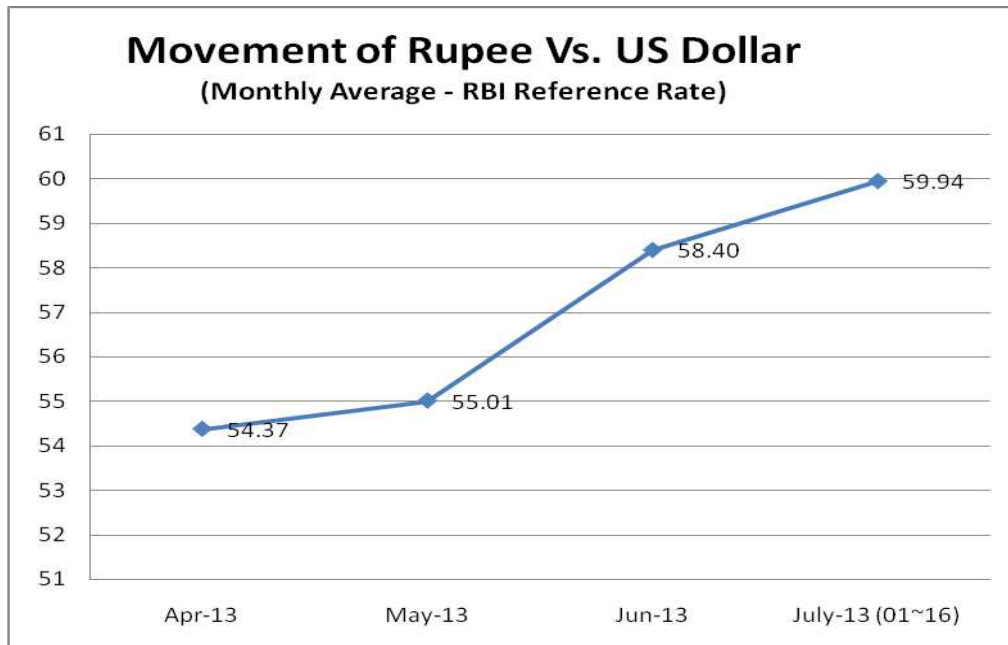
뉴델리사무소

□ 인도 루피화 급락세 지속

○ 인도는 현재 사상 최대 경상수지 적자¹⁾에 직면, 루피화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음. 미국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은 금년 들어 지난 7월 15일까지 8.2%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음.

- 인도 루피화 가치는 지난 15일 뭘바이 외환거래소에서 전날보다 0.4% 하락한 59.895달러로 마감했고, 지난 8일에는 사상 최저치 (61.215달러)를 기록함.

추락하는 인도 루피화 추이(2012년)



자료 : 인도 중앙은행

1) 인도의 2012년 4분기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사상 최대인 319억 달러를 기록함.

□ 인도 중앙은행, 은행금리 인상으로 루피화 약세 방어

- 인도 중앙은행은 7월 15일자로 사상 최저수준까지 하락한 루피화 가치 방어를 위해 은행금리를 종전 8.25%에서 10.25%로 인상한다고 발표함. 아울러, 긴급자금대출(Marginal Standing Facility) 금리도 총한도인 7,500억 루피(약 125억 달러)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8.25%에서 10.25%로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함.

※ 긴급자금대출(Marginal Standing Facility) 금리 : 은행들이 다른 유동성 확보 수단을 모두 소진한 경우 중앙은행이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금리

- 따라서, 이번 은행금리 인상조치는 시중에 공급한 자금을 환수하여 루피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.

- 한편,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화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 1,200억 루피(약 20억 달러)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였으며, 이와 같은 조치는 mamohan 싱 총리와 치담바람 재무장관의 긴급 회동 직후 발표된 것으로 알려짐.

자료원 : 인도 중앙은행 및 The Indian Express 등 언론종합